

01 APEC 지식재산 교육 허브로 발돋움

APEC 지식재산전문가회의에서 포괄적 교육협력 구상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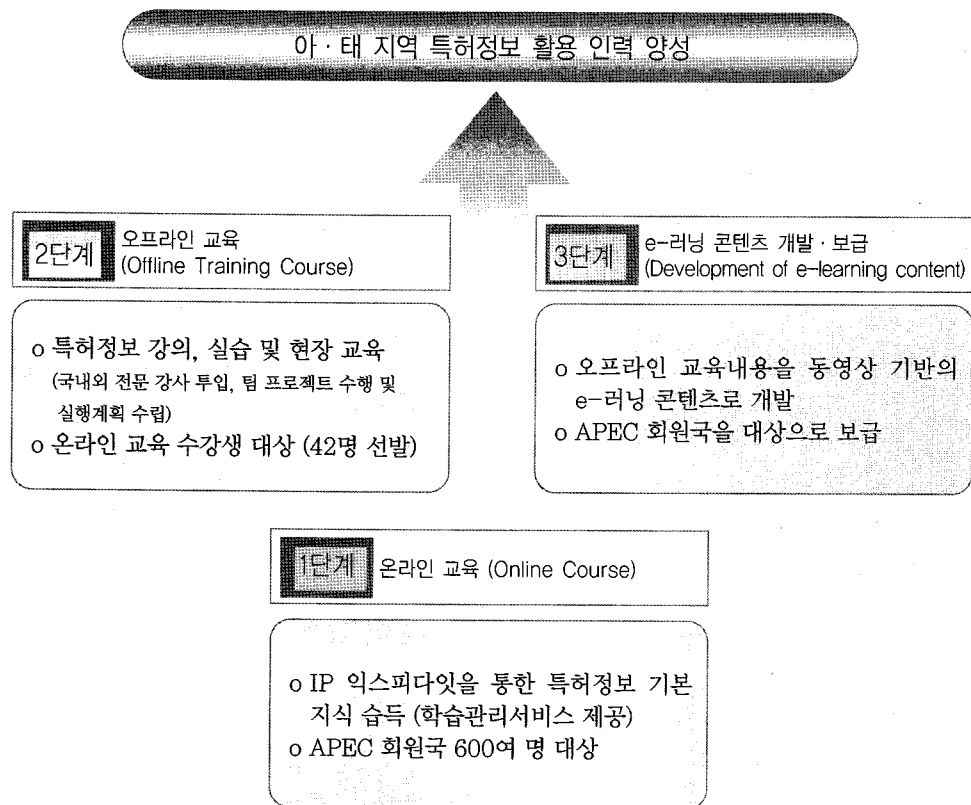
“APEC 역내에서 이렇게 좋은 지재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8월 특허청과 APEC이 공동개최한 ‘특허정보 활용인력 양성교육’에 참가한 러시아 수강생의 소감이다.

특허청은 지난 3월 5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제30차 APEC IPEG(지재산전문가그룹) 회의에서 APEC 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된 「APEC 특허정보 활용인력 양성사업」의 성공적 결과를 발표하여 국제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APEC 특허정보 활용인력 양성사업」은 특허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교육내용 전부가 이러닝 콘텐츠로 개발되어 인터넷(global.ipcademy.net)에 무료 공개되어 있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은 APEC 회원국 대표들로부터의 뜨거운 호평에 힘입어, 대한민국이 강점을 갖는 우수한 IT 인프라와 이러닝 교육콘텐츠를 바탕으로 역내 포괄적 교육협력 선도를 위한 미래 구상을 제안하여 회원국들의 전폭적 지지를 확보했다. 특히, APEC 회원국들의 이러닝 교육 콘텐츠의 맞춤형 제작지원, 지식재산 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온라인/오프라인 혼합형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 이러닝 교육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02 한 번의 민원신청으로 모든 궁금증 해결!

「One-Stop 민원 도우미 제도」 실시

특허청은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는 민원신청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 부처 최초로 「One-Stop 민원 도우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특허청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 답변 이전에 특허청 민원업무 직원(엔젤도우미)의 전화상담(엔젤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정확한 민원내용 설명과 함께 추가로 질문을 전달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민원답변 후 불만이 있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해당 업무 담당자(행복도우미)가 제공하는 전화상담(해피콜)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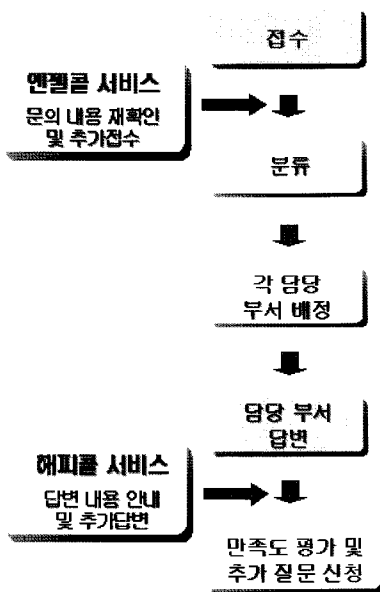
앞으로, 민원인들은 이 제도를 통해 국민신문고로 신청하는 매년 1천여 건 이상의 민원에 대해 사전 전화상담은 물론, 답변사항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어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ONE STOP」 민원 도우미 제도 절차 흐름도

1. 기존 민원 처리흐름도



2. 「ONE-STOP」 민원 처리흐름도



03 원천특허 확보 가능한 기술을 찾아 드립니다

「IP Wisemen Committee」 발족

우리 기업의 원천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산업계 前, 現職 CTO 15명이 발 벗고 나섰다.

특허청은 이들로 구성된 「IP Wisemen Committee」를 발족하여 5~10년 뒤 미래 시장을 주도할 미래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동 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1차 포럼을 개최하고, 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R&D 투자액은 '08년 34조 원으로 GDP 대비 세계 4위, 특허출원 세계 4위 등 양적인 면에서는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이 가능한 '강한 지재권' 창출 및 확보는 미흡하였다.

※ 기술무역 적자폭 지속적 확대 : ('02) 21억 달러 → ('08) 31억 달러

이는 기업들이 이미 시장이 형성되고, R&D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술분야 위주로 R&D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특허 획득이 가능한 기술분야에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번에 「IP Wisemen Committee」를 발족하게 되었다.

동 위원회에는 여중기 前 LG화학 사장, 임형규 삼성전자 사장, 이민화 前 메디슨 회장 등 前, 現職 CTO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회 지원조직으로, 특허청 심사관과 'R&D 특허센터'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한 보장자료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04 위조상품단속반 영남권 지역사무소 확장·이전

‘본격적인 위조상품(“작통”) 단속활동 기대

특허청장은 ‘위조상품단속반 영남권 지역사무소’를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지하철 남천역 1번 출구에 인접한 정암빌딩 11층으로 옮기고 지난 3월 16일 개소식을 가졌다.

작년 2월말 남구 문현동의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내에 설치한 사무실을 확장·이전한 것이다.

이번 사무실 이전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관세청의 ‘관세범’ 단속 등 18개 부처 28개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위조상품 단속분야에도 도입하고자 우선 위조상품 관련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조사실’과 압수된 위조상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고, 향후 수사관련 ‘전문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다.

05 특허청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가 달라진다

정보화 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특허청은 정보화 사업의 체계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정보화 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3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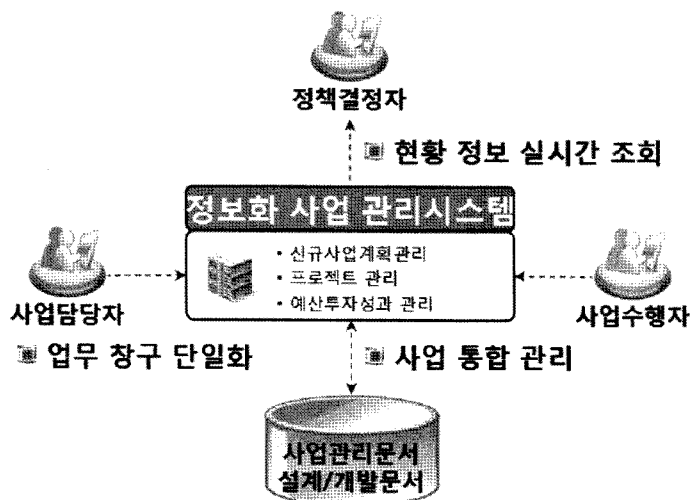
정보화 사업 관리시스템은 정보화사업 기획 단계부터 검수·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이를 시스템화한 것이다.

특허청의 정보화 사업은 그 동안 사업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절차나 지침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각종 사업 현황정보도 담당자에게 의존해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특허청은 정보화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각종 절차와 지침에 대한 안내, 기존 산출물에 대한 정보 획득, 각종 사업현황의 실시간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화 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특허청 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보다 쉽게 사업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단일화된 업무창구를 통해 사업 진척도, 예산집행 현황, 투자성과 등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져 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6 한국, 국제 특허정보 표준 리더로 급부상!

3국 특허청 표준회의, 대한민국에 러브콜

한국이 특허정보 표준경쟁의 국제역학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특허청은 3국 선진 특허청(미국, 일본, 유럽)의 초청으로 지난 3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3국 표준회의(TDSA)에 공식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특허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국제특허정보표준을 제시, 명실상부한 국제특허표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07 아랍지역과 신지식재산협력시대 열어

아랍지역과 지식재산협력을 위한 카이로 공동선언

특허청은 이집트 등 2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랍국가연맹(LAS)과 지식재산협력을 위한 카이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특허청은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고정식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차장, 아랍지역 14개국 특허청 및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한 카이로 선언’을 선포하고, 특허청의 글로벌 지식재산 이리닝 콘텐츠인 ‘아랍어판 IP 파노라마’를 공식 출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특허청이 아랍지역과 최초로 시작하는 협력사업으로서 최근 UAE 원전 수주 등 한-아랍 간 경제협력 분위기 증대와 더불어 지식재산분야 협력에 물꼬를 튼 것이다.

고정식 특허청장과 시마 바부스(Sima Babous) LAS 사회분야 사무차장, 제프리 오네야마(Geoffrey Onyeama) WIPO 사무차장이 대표로 서명한 카이로 선언에서 “대한민국은 아랍지역 발명인과 중소기업인이 지식재산 경영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카이로 선언은 우리의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발전경험을 아랍권국가에 전파함으로써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08 “발명특허활동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자”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업무협약(MOU) 체결

특허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3월 10일, 발명과 특허활동을 위해 창의적인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창의적 노력의 성과인 지식재산이 존중받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위하여 양 기관은 발명과 특허교육 등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육성, 지식재산과 과학기술관련 홍보 및 문화 활동 전개, 우수 발명인력의 발굴과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대회의 공동 개최, 창의적 발명인력의 국제교류 활동 등 6개 중점 분야에서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09

중소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특허청-한국무역협회가 책임진다!

해외 특허권 창출을 위해 '10년도에 총 41억 원 지원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수출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 및 수출지원을 위해 지난 3월 23일, 무역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기관은 중소기업이 유망기술을 해외 특허권으로 권리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10년도에 총 41억 원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특허 출원비용지원 외에 수출기업 직원 대상으로 특허 교육 실시, 특허출원·분쟁 상담 및 설명회 개최, 특허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10

국유특허! 잘만 사용하면 돈이 보인다

'돈' 되는 알짜배기 국유특허 3년간 무상 이용 가능

특허청은 기술성이 우수한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를 누구나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개정하였다.

지금까지는 1년간만 무상으로 국유특허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국유특허 사용자가 기술을 이전받아 상품화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무상사용 기간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1년간 사용하는 무상실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유특허 사용자는 장기간 동안 초기 비용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며 시장형성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국유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국유특허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국유특허 목록과 신청방법은 인터넷 기술장터(www.ipmart.or.kr) 내의 국유특허코너와 특허청 홈페이지 내(www.kipo.go.kr)의 특허로(국유특허사용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상담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5172)로 문의할 수 있다.